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호 THE UNITED / 발행일 2023년 04월 01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천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인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더스포츠키투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축협팩카드빌딩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하나원큐 K LEAGUE 1



OFFICIAL MAGAZINE
2023.04.01 / 제2호

2023 SEASON

2023시즌 경기일정
2023시즌 선수명단

vs DAEGU PREVIEW

승리가 필요한 인천,
대구 집고 분위기 반전 노린다

vs SUWON FC PREVIEW

인천, 흔들리는 수원FC 상대로
설욕전 펼친다

vs ULSAN PREVIEW

승점이 필요한 인천,
1위 울산 상대로 승점을 따내라

BLUEMAN INTERVIEW

'2년 만에 돌아온' 정동윤
"AFC 챔피언스리그를 인천의 무대로 만들 것"

ROOKIE INTERVIEW

독일에서 돌아온 상군 유스천성호
팬들이 '인천으로 잘 돌아왔구나' 생각하는 선수가 되겠다

UTD REPORTER NEWS

기대감 속 시작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인천의 한 달 성적표





INCHEON UNITED 2023 SQUAD



조성환 감독
HEAD COACH



김한윤 수석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변재섭 코치
COACH



김이섭 GK코치
GK COACH



오지우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광석 스카우트
SCOUT



황건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도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육태훈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박준성 통역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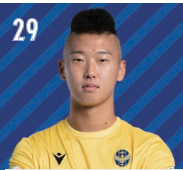
김동현
GOAL KEEPER



이태희
GOAL KEEPER



민성준
GOAL K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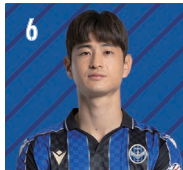
김유성
GOAL KEEPER



김연수
DEFENDER



오반석
DEFENDER



문지환
DEFENDER



강윤구
DEFENDER



정동운
DEFENDER



임형진
DEFENDER



김준엽
DEFENDER



멜브리지
DEFENDER



김건희
DEFENDER



김동민
DEFENDER



권한진
DEFENDER



이명주
MIDFIELDER



김도혁
MIDFIELDER



신진호
MIDFIELDER



이동수
MIDFIELDER



여름
MIDFIELDER



박현빈
MIDFIELDER



민경현
MIDFIELDER



최우진
MIDFIELDER



김현서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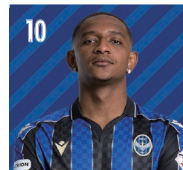
박진홍
MIDFIELDER



음포쿠
MIDFIELDER



김세훈
MIDFIELDER



에르난데스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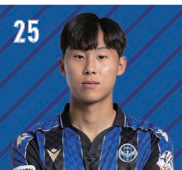
제르소
FORWARD



송시우
FORWARD



지언학
FORWARD



김민석
FORWARD



김보섭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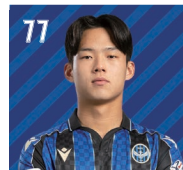
하동선
FORWARD



홍시후
FORWARD



김대중
FORWARD



박승호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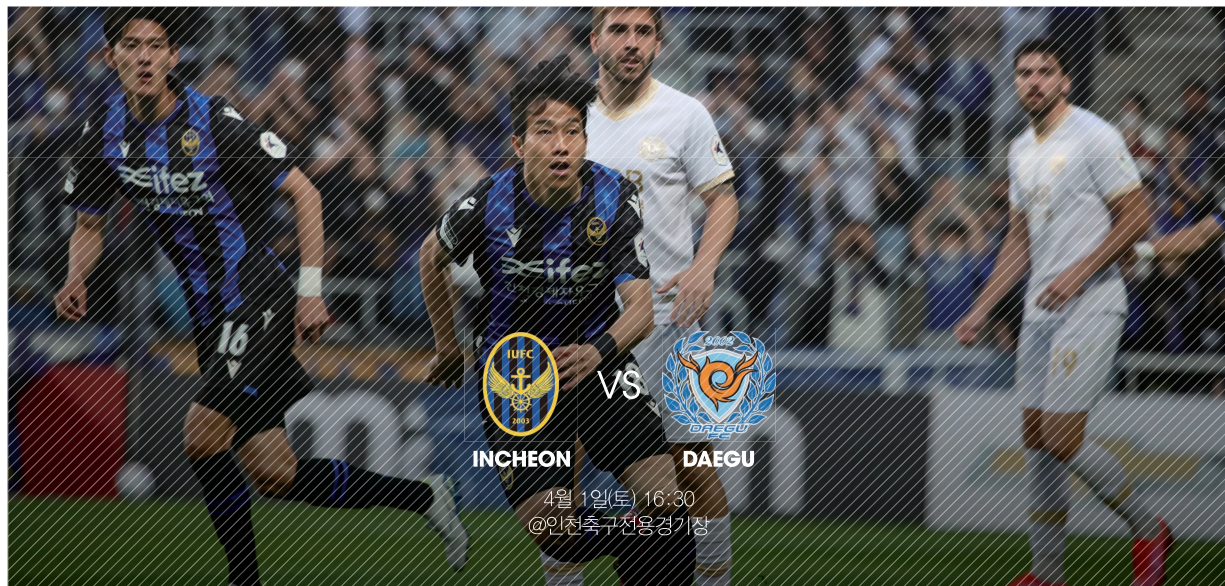
천성훈
FORWARD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1R	02월 25일(토) 20:30	2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2R	03월 04일(토) 14:00	3	인천 : 대전	3	인천축구전용
03R	03월 12일(일) 16:30	1	인천 : 제주	0	인천축구전용
04R	03월 18일(토) 14:00	5	광주 : 인천	0	광주축구전용
05R	04월 01일(토) 16:30		인천 : 대구		인천축구전용
06R	04월 09일(일) 16:3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07R	04월 16일(일) 14:00		강원 : 인천		춘천송암
08R	04월 22일(토) 19:00		인천 : 수원FC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5일(화) 19:3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10R	04월 30일(일) 16:3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11R	05월 05일(금) 16:3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10일(수)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13R	05월 14일(일) 16:30		인천 : 전북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20일(토) 16:3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7일(토) 19:0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16R	06월 04일(일) 16: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17R	06월 07일(수) 19: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11일(일) 19:0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19R	06월 25일(일) 16:3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20R	07월 02일(일) 19:3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8일(토)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22R	07월 12일(수) 19: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23R	07월 16일(일) 20:00		인천 : 대전		인천축구전용
24R	07월 22일(토) 19:30		서울 : 인천		서울월드컵
25R	08월 06일(일) 19: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26R	08월 13일(일) 19:30		인천 : 대구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18일(금) 19:3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25일(금)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29R	09월 02일(토) 19: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30R	09월 16일(토) 14:0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4일(일) 16:30		강원 : 인천		강릉종합
32R	09월 30일(토) 19: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3R	10월 08일(일) 15: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AFC 챔피언스리그과 FA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 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DAEGU PREVIEW

승리가 필요한 인천, 대구 잡고 분위기 반전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유나이티드의 4월 첫 홈경기 상대는 대구FC이다. 3월 18일 4라운드 광주 원정 이후 A매치 휴식기를 거친 뒤 2주 만에 치르는 경기다. 인천과 대구는 A매치 휴식기 전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져갔다. 인천은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알렸지만 광주 원정에서 0-5로 대패했고, 반대로 대구는 우승 후보로 여겨졌던 전북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기며 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인천은 지난 시즌 대구를 상대로 2승 1무의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첫 맞대결이었던 대구 원정에서 무고사의 멀티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고, 13라운드 홈경기에서는 또다시 무고사의 극장 골로 2-2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이후 27라운드 원정에서 이명주, 에르난데스, 김도혁이 연달아 득점하며 3-2 승리를 거뒀다.

대구는 지난 시즌 가마 감독의 사퇴와 강등권까지 떨어지는 등 힘겨운 시즌을 보냈지만 뒷심을 발휘해 8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번 시즌도 정태욱, 제카 등 주축 선수들을 떠나보내며 전력 공백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에드가, 바셀루스, 세라토, 김강산 등 공수 양면으로 많은 선수를 영입하며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대체했다.

대구는 주로 수비적으로 나서다 공을 뺏으면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린다. 특히, 세징야와 에드가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주의해야 한다. 부상으로 한동안 팀을 떠났던 에드가가 대구로 돌아오면서 과거에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준 ‘세드가’ 조합이 다시 만들어졌다. 세징야의 예리한 패스와 에드가의 마무리 능력은 득점 보충수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드가는

지난 강원과의 3라운드에서 복귀골까지 만들어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또한, 고재현과 브라질 신입생 바셀루스, 세라토가 대구에 잘 녹아들며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공격에 비해 대구의 수비진은 불안하다. 치명적인 실수가 득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인천은 이 부분을 이용해 득점을 노릴 필요가 있다.

인천과 대구의 통산전적은 18승 19무 12패로, 인천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가져온 적은 없었다. 분위기가 반전이 필요한 인천으로선 휴식기 후 첫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vs SUWON FC PREVIEW

인천, 흔들리는 수원FC 상대로 설욕전 펼친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의 4월 두 번째 홈경기 상대는 수원FC이다. 인천은 지난 시즌 수원FC를 상대로 2무 1패를 거두며 약세를 보였다. 첫 맞대결이었던 수원FC 원정에서 무고사의 극장 골로 2-2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고, 20라운드 홈경기에서는 니실라에게 후반 막판 실점하며 0-1 패했다. 이후 26라운드에 또다시 홈에서 만났지만 양 팀 득점 없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 시즌 수원FC는 팀 득점 전체 2위를 기록하며 매 경기 매서운 공격력으로 상위권까지 올라왔으나 수비력 문제와 시즌 막바지에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최종 7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상위 스플릿에 오르지 못한 것은 수원FC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상위 스플릿에 오르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새로운 선수를 다수 영입하며 새 시즌 준비를 철저히 했다.

수원FC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핵심 자원인 박민규, 김승준, 김건웅 등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윤빛가람, 최보경이라는 베테랑 미드필더를 영입했고 이재성, 김현훈, 이용 등 경험 많은 수비수들을 영입하며 부족했던 수비라인도 보강했다. 든든히 뒷문을 지켜주던 유현의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노동건을 영입하며 공백을 없앴다. 또한, 제 역할을 해주던 주전 선수들을 대거 잔류시키며 선수단을 탄탄하게 구성했다.

수원FC는 기존에 라스, 무릴로, 이승우를 중심으로 만들어간 공격 작전에 베테랑 미드필더 윤빛가람과 발 빠른 이광혁이 합세하면서 공격의 무게감이 보다 더 높아졌다. 인천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

FC는 현재 1승 1무 2패로 리그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즌만큼의 날카로운 모습 보이지 않으며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다. 또한, 리그 초반부터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변수까지 생겨 버린 상황이다.

인천과 수원FC의 통산 전적은 3승 5무 2패로 조금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 시즌 3번의 만남을 포함해 최근 5경기 동안 수원FC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 좋은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가져오지 못해 더욱 아쉬움이 컸다. 인천이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제대로 된 설욕전을 펼쳐야 한다.





vs ULSAN PREVIEW

승점이 필요한 인천, 1위 울산 상대로 승점을 따내라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의 4월 마지막 홈경기 상대는 이번 시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현대다. 4월 한 달 동안 5경기째 치르게 되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시기에 울산이라는 쉽지 않은 상대로부터 승점 획득에 나선다.

인천은 지난 시즌 울산을 상대로 3무 1패를 거두며 약세를 보였다. 첫 맞대결이었던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무고사의 골로 1-1 무승부를 거뒀고, 12라운드 울산 원정 경기에서는 무고사와 이용재의 이른 득점으로 앞서갔지만 후반전에 2골을 내리 실점하며 또다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후 32라운드에 또다시 홈에서 만났지만 다시 한번 무승부를 거뒀지만 34라운드 홈에서 0-3으로 패했다.

지난해 울산은 17년 만의 K리그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울산은 작년에 이어 2연속 K리그 우승을 위해 겨울 이적시장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지만 많은 자리에 보강이 필요했다.

수비 라인은 K리그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우승 주축 선수였던 레오 나르도와 아마노 준이 팀을 떠났고 원두재, 김민준, 신형민 등 로테이션 자원으로 대거 자리를 옮기며 전방과 중원에서 많은 이탈이 생겼다. 울산은 스웨덴 출신의 보야니치,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에사카 아타루, 성남에서 김민혁을 영입하며 중원 보강을 완벽하게 해냈다. 또한, 겨울 이적시장 FA 최대어였던 주민규를 재영입하며 마틴 아담과 함께 리그 최정상급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게 되었다.

울산은 시즌 초반 4연승을 달리며 우승 팀으로의 굳건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다수의 국가대표 출신들이 보여주는 안정적인 기량과, 새로 합류한 이적생들이 빠르게 소속팀에 녹아들어 매 경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엄원상과 루빅손의 돌파 이후 주민규와 마틴 아담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인천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기준 리그 최소 실점을 달리고 있을 만큼 정승현, 김영권의 수비라인은 매우 견고하다.

인천과 울산의 통산전적은 13승 17무 27패로 열세다. 울산을 상대로 승리한 기억이 12경기 전이다. 하지만 지난 시즌 4번의 만남에서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다. 비록 승점 1점이었지만 우승 후보 울산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번 시즌 인천은 작년보다 더 강해졌다. 인천이 기나긴 무승을 끝내고 팬들과 함께 승리를 즐길 때가 됐다.



매일 주고 싶은
프리바이오틱스 영양간식
가이갱이 먹여요!



‘가이갱이’란?

강아지(가이:황해도), 고양이(갱이:경상도)의 사투리로
막걸리효모 성분으로 장건강을 책임지는 반려동물 간식입니다.



스피루리나&클로렐라
장+관절건강



아스타잔틴&오메가
장+눈건강



콜라겐&히알루론산
장+피부건강



'2년 만에 돌아온' 정동윤, AFC 챔피언스리그를 인천의 무대로 만들 것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는 잔류왕을 넘어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팀으로 성장했다. 인천의 아시아 무대 이야기, 그 시작은 2020년 10월 24일이였다. 인천은 부산아이파크와 2020시즌 홈 최종전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최하위로 떨어져 있던 인천은 패하면 강등이 확정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인천은 전반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사상 첫 강등이 눈앞까지 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은 기적을 만들었다. 후반 29분 김대중의 동점 골에 이어, 곧바로 정동윤의 역전 골까지 터졌다. 결국 2020년, 인천은 시즌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잔류에 성공했다. 그 후 인천은 승승장구하며 2023/24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뤄냈다. UTD기자단은 인천의 아시아 진출기 첫 장을 장식한 정동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2020시즌 마지막 홈경기 승리는 모두의 노력 덕분

2020시즌 홈 최종전 부산전은 인천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되었다. 인천 팬들은 적극적으로 승리를 청진 이 경기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역대 최고의 순간으로 선정하며 기념했다. 정동윤은 "2020년 마지막 홈경기 부산전은 나뿐만 아니라 팀

원 모두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한 경기였다. 자존심도 많이 상한 경기이기도 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는 큰 추억이자 성장의 발판이 된 경기다. 팬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동윤의 역전골 덕분에 인천이 그 해에 잔류할 수 있었고, 그 시즌에 강등당하지 않아서 인천이 지금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인천이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데 정동윤의 공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동윤은 성과를 다른 이들에게 돌렸다.

정동윤은 "내 골로 그 경기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천유나이티드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경기를 준비했다. 이기기 위해서 모두 정말 많이 노력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아닌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들, 코치진, 프런트, 팬 모두가 이뤄냈고,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군 생활동안 달라진 인천에 적응 중

정동윤은 이후 2021년 김천상무에 입단해 18개월간 군 복무를 마치고, 올해 다시 인천으로 복귀했다. 정동윤은 "2시즌 만에 인천으로 복귀했다. 전역하고 막 팀에 합류했을

때는 새로운 팀에 온 것 같았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랜만에 인천으로 오니 어색하기도 했다.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인천에 돌아온 소감을 이야기했다.

많은 선수가 군 복무 동안 축구에 집중하며 성장하고 있다. 정동윤도 그중 한 명이었다. 정동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축구를 대하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동안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다. 이제는 축구를 행복하게 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축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군 복무로 얻은 가장 큰 성과다"라고 김천상무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정동윤이 상무에 다녀오기 전후로 인천은 크게 달라졌다. 정동윤이 입대하기 전에는 인천이 막 잔류왕이라는 별명을 때고 있었을 때였지만, 지금은 리그 4강 후보로 평가받는 강팀이 되었다. 정동윤도 인천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정동윤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선수 변화다. 내가 알고 지내던 선수가 많이 없어졌다. 모르는 선수도 많아졌다. 좋은 선수가 많이 영입되었고, 팀 색깔도 바뀌어서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 클럽하우스도 새로 생겼다. 2년 전보다 인천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입대 전후로 달라진 인천을 이야기했다.

정동윤은 김천상무 소속이던 지난해, 리그 7라운드까지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활약했

다. 그러나 그 이후에 4개월간 1경기도 뛰지 못했다. 출전 시간 부족으로 정동윤의 경기 감각과 체력을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정동윤은 "지난 시즌에 부상 등 여러 이유로 경기에 못 나오면서 공백기가 생겼다.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동계훈련에서 스스로 운동을 많이 했다. 시즌을 앞두고 생각보다 몸 상태가 괜찮았다. 동계훈련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경기 감각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이어 정동윤은 "그렇지만 작년에 많이 뛰지 못했던 그 여파가 없지는 않다. 아직 팀 색깔에 녹아들지 못하는 점이 고민이다. 그래도 컨디션은 좋다. 개막전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더 나왔던 것 같다. 경기를 뛰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인천의 템포나 색깔을 이제 알아가는 느낌이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현재 몸 상태를 이야기했다.

조성한 감독은 3라운드 제주유나이티드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던 정동윤에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정동윤은 "감독님이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신다. 경기장에서 내 장점이 안 나오다 보니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졌었다. 그것을 감독님이 잡아 주셨다. 감독님이 조언을 잘해 주신다.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하면, 나의 플레이가 나올 것이라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신다.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큰 힘이 된다. 감독님이 나를 믿어 주신다고 느낀다"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조성한 감독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즌 리그 4위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낸 인천은 그 기세를 이어 올해도 리그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막 첫 번째 달에는 4경기 동안 1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높은 기대치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정동윤은 "3월 성적은 팬분들께서 인천에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4경기를 했을 뿐이다.

시즌 중후반이 아니라 초반에 문제를 확인해서 다행이다. 이 4경기에서 모든 구성원이 많이 느꼈다. 3월 A매치 휴식기에 어떻게 다음 일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부진 탈출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천은 3월 마지막 경기였던 4라운드 광주FC 원정에서 0-5로 대패했다. 정동윤은 후반 15분에 교체 투입되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정동윤은 "팬분들이 원정 경기임에도 홈 같은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경기장에 많이 오셨다. 그 응원에 보답하지 못해 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다. 선수들도 멀리서 온 팬분들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제일 마음 아파하고 있다. 선수들끼리 많이 소통해서 더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빠르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패배를 딛고, 분위기를 반전할 것을 약속했다.

3경기 연속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정동윤은 4라운드 광주전에서는 교체로 경기에 출전했다. 정동윤 대신 광주전에 선발로 나선 선수는 민경현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준엽도 오른쪽 측면 수비 자리에 대기 중이다. 정동윤은 주전 경쟁도 경쟁이지만, 그것보다 화합을 강조했다.

정동윤은 "스리백에서 윙백이 가장 중요하다. 같은 오른쪽 윙백 김준엽 선수나 민경현 선수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김도혁 선수, 강윤구 선수도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생각에 부담감을 많이 지니고 있다. 윙백들이 다 고민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포지션보다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 영상도 같이 보면서 서로 공감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준다. 윙백들끼리 잘 소통하고 있어서 점점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팬분들이 윙백에게 원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측면 수비수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측면 수비수들 간의 호흡을 설명했다.

팬들이 정동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투지 있는 수비는 물론, 3년 전 부산과의 경기에서 기록한 역전 골처럼 적극 공격에 가담하는 플레이다. 정동윤은 "인천이 공격적인 팀이 됐고, 공격적인 전술을 쓰고 있

다. 그래서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너무 의식하다 보니 때로는 경직되기도 한다. 공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 해야 할 실수도 하고 있다. 훈련을 많이 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AFC 챔피언스리그를 인천의 무대로 만들고 싶다

올 여름 인천은 사상 처음으로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선다. 정동윤에게도 프로 데뷔 후 첫 아시아 무대다. "AFC 챔피언스리그는 프로 입단하기 전부터 기대했던 대회다. 아시아 무대에 K리그 대표로 나가서 자랑스럽다. 8월에 대회가 시작한다. 그 전에 리그에서 승점을 잘 쌓아 놓아야 한다. AFC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인천의 무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AFC 챔피언스리그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동윤은 리그는 물론,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플레이오프, 조별리그를 넘어 토너먼트까지 가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 리그에서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를 위협하고, 거의 따라 붙을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싶다. 개인적인 목표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소화하는 것이다. 팀에 헌신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싶다. 공격포인트도 많이 쌓고, 경기도 많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시즌 목표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동윤은 "올해 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선수단 모두 알고 있다. 4라운드까지는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네 경기를 통해 선수들이 느낀 것이 많다. 좋은 약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34경기 남았다. 시즌 초반에 예방 주사 맞은 것을 잊지 않았다. 준비 잘해서 5라운드 대구FC전부터 좋은 모습 보여 드릴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독일에서 돌아온 성골 유스 천성훈 팬들이 ‘인천으로 잘 돌아왔구나’ 생각하는 선수가 되겠다

글 = 주대은 UTD기자 (ju_dann@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에는 구단 유소년 시스템을 거친 많은 선수가 있다. 이 선수들은 팀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한다. 인천의 골문을 지키는 이태희와 김동현, 지난 시즌 인천의 공격을 이끌었던 김보섭, 9년 만에 인천의 파이널A 진출을 확정 짓는 극장골을 넣은 김민석 등 인천의 역사 속엔 구단 유소년 시스템을 거친 선수들이 있었다.

인천의 역사를 이어갈 또 다른 유스 출신이 인천에 복귀했다. 바로 최전방 공격수를 주로 소화하는 천성훈이다. 천성훈은 인천 U-12 - 광성중(인천 U-15) - 대건고(인천 U-18)를 거쳤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FC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경험을 쌓았다.

천성훈의 독일 진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천성훈은 2023시즌을 앞두고 친정팀 인천에 복귀했다. UTD기자가 인천의 최전방을 책임질 천성훈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인천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천성훈은 4년간의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과정은 순조로움 그 자체였다. “국내 복귀를 알아보던 중 가장 먼저 인천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환영해주셨고, 전혀 어려운 문제 없이 모든 과정이 쉽게 처리됐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친정팀으로 복귀했지만, 천성훈은 인천 유스 팀에서만 시간을 보냈고, 성인 팀에서 경험은 아직 없었다. 1군 합류는 처음인 탓에 적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옆에는 광성중, 대건고 시절 함께 했던 선배들이 있었다. “적응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었다. 광성중, 대건고 당시 같이 운동했던 선배도 있고, 인천 관계자분들이나 직원분들도 다 아는 분들이었다.”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어색함도 없었고, 적응도 빨라졌다. 가장 많이 도와준 건 (김)보섭이형이다. 같이 방쓰는 (정)동윤이형도 날 많이 챙겨주셨다. 또 (이)동수형도 적응을 많이 도와주셨다.”

천성훈은 인천으로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동계 훈련에 합류했다. 천성훈은 첫 동계 훈련을 이렇게 회상했다. “동계 기간이 너무 길었다.(웃음) 유럽은 동계 기간이 한국 만큼 길진 않다. 독일은 짧으면 10일, 길면 2주 정도 훈련을 진행한다. 동계 훈련이라는데 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올리고, 조직력을 다지는 시기다. 독일과 한국 훈련의 질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독일도 강도가 높은 훈련으로 진행된다. 다만 한국은 동계 훈련 기간이 좀 길어서 힘들었다. 다른 선수들도 지칠 텐데 티를 안 내고 하니까 나도 그런 부분에서 동기 부여를 얻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쳤지만,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나도 거기에 몰려갔다.”



멋진 경기장도 그대로, 열정적인 팬들도 그대로다

인천은 천성훈에게 큰 의미를 주는 팀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독일 진출 전까지 구단의 모든 유소년 시스템을 거치며 꿈을 키웠다. “인천은 천성훈이라는 축구선수를 성장시키고, 좋은 기회와 무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 같은 팀이다. 유스 시절 볼 보이를 하며 인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봤다. 어린 시절부터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경기를 뛰고, 팬들 앞에서 좋은 퍼포먼스와 멋진 장면을 보여드리며 승리하는 날을 꿈꿨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 좋게 기대하고 있다.”

천성훈이 인천 유스 시절이었던 당시 인천과 지금의 인천은 완전히 다른 팀이다. 그에게 직접 차이를 물었다. “그때는 강등 싸움을 하는 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승권 싸움을 하는 팀으로 변했지 않나. 팀의 위치 말고는 다 똑같다. 멋진 경기장도 그대로고, 열정적인 팬들도 그대로다.”

“아, 선수단은 많이 바뀌었다. 내가 유스 선수일 때부터 있던 선수는 (김)도혁이형, (김)보섭이형 정도밖에 없다. 같은 포지션은 아니었지만 도혁이형을 보면서 특유의 투지와 정신력을 본받고 싶었다. 보섭이형도 그때는 주축 선수가 아니었다.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해서 당당히 주축 선수가 된 걸 보며 자극도 받고 많이 배우고 있다.”



기회가 올 때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천에서 뭘 날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천성훈은 아직 데뷔하지 못했다. 그러나 천성훈은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지거나, 주눅이 들지 않았다. 그는 성숙하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 상태는 좋다. 아픈 곳도 없다. 감독님이 기회 주시기 전까지 잘 준비해서 기회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

다. 아직 경기에 나서진 못했지만, 기회가 올 때 좋은 모습을 바로 보여주어야 한다. 언제든지 경기장에 나설 생각하면서 열심히 스스로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한편 천성훈은 대한민국 U-24 축구 국가대표팀 아시안게임 대비 카타르 원정 명단에 선발됐다. “많이 설렌다. 황선홍 감독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02 월드컵 레전드 출신이시고, 같은 공격수로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소집되는 것도 기쁘지만, 공격수 출신이었던 감독님 밑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배울 수 있는 게 좋은 기회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공격포인트 10개 목표, 팬들이 ‘인천으로 잘 돌아왔구나’ 생각하는 선수가 되겠다

묵묵히 칼을 갈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천성훈, 그에게 이번 시즌 목표에 대해 물었다. “공격수니까 당연히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목표다.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싶다. 어시스트와 골 가리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공격포인트 10개라면 나쁘지 않은 데뷔 시즌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 스쿼드에는 정통 9번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다. 인천 팬들은 최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천성훈을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인천 유소년 시스템을 모두 거친 ‘성골 유스’라는 점에서 천성훈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아직 경기에 나가지 않고 있지만 나갔을 때 팬들이 ‘인천으로 잘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선수가 되겠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기대감 속 시작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인천의 한 달 성적표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시즌 시작 전, 인천유나이티드는 가장 많은 기대를 받은 팀 중 하나였다. 개막을 앞두고 열린 K리그 미디어데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K리그 감독들은 예상되는 4강 팀에 인천을 뽑았고, 견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유 있는 기대감이었다. 2022시즌 MVP 후보에 올랐던 신진호를 영입하며 이명주-신진호라는 역대 최고의 중원을 구축했고, 현재 리그에서 최고의 외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르소를 영입했다. 에르난데스도 부상에서 복귀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인천은 기대했던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3라운드까지 패배, 무승부, 승리를 차례로 겪은 인천은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개막전에서는 다소 아쉬워도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인천은 4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단 한 점도 득점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5점을 내줬다. 기대의 인천은 다시 위기의 인천이 됐다. 이제 막 시작을 한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심할 수 없다. 약점을 파악했을 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3시즌은 인천에게 매우 중요하다. 창단 20주년이자 최초로 아시아 무대를 밟게 된 해이기 때문이다. 높은 목표도 있다. 멀리 날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더 찬란한 인천의 비상을 위해 지난 한 달의 되돌아보고자 한다.



한 경기에 3득점을 해도 아쉬웠던 이유

인천은 시즌 시작 전부터 공격적인 색채가 짙은 제르소를 영입하며 기대를 높였다. 조성한 감독 역시 공수전환이 빠르고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는 축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부상에서 복귀한 에르난데스와 여러 차례 클라스를 증명한 제르소,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외인 음포쿠까지 더해져 인천의 공격력은 한층 강화됐다.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듯 공격적인 모습은 경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빠른 전개 과정이 종종 눈에 띄었고, 위협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골로 이어지는 것은 적었다. 특히 2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극에 달했다. 22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 17개가 유효슈팅이었다. 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진 것은 단 세 개였다. 3득점을 하고도 무승부를 거둬야했고, 3득점을 하고도 '아쉬운 득점력'이라는 평을 들어야 했다.

4라운드를 마친 현재, 인천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대득점을 기록한 팀이다. 9.25점이라는 값은 압도적이다. 2위인 전북현대가 5.87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득점은 5득점으로, 리그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록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발전의 여지는 있다. 지난 시즌 인천의 가장 큰 고민은 득점이었다. 득점만큼 슈팅 수도 적었다. 38경기에서 395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실제 득점은 46개로, 전체 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4경기에서 65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12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는 확실한 개선이 있다. 아직은 시즌 초반, 이제 영점을 제대로 맞추는 일만 남았다. 이후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인천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세트피스, 다시 약점이 되다

지난 시즌 인천을 고민에 빠트렸던 것 중 하나는 세트피스였다. 38경기에서 세트피스로 넣은 득점은 단 하나였다. 세트피스는 결정적인 득점의 기회지만 인천에게는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달랐다. 킥 정확도가 높은 신진호의 합류로 세트피스에서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개막전에서도 패배하긴 했으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즌 첫 골이 세트피스 득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세트피스 공격 전술도 필요하다.

세트피스 공격에 대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수비에서 문제가 생겼다. 특히 세트피스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광주와의 경기에서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인마크를 해야 할 선수를 놓쳐 상대 선수가 쉽게 슈팅할 수 있게 두는 등 아쉬운 점이 보였다. 득점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실점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세트피스다. 양 측면에서 모두 확실한 개선을 거쳐야만 더 높이 날 수 있다.



'역대급 중원'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시즌 시작 전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명주와 신진호라는 중원 조합 때문이었다. 공격과 수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포지션인 만큼 중요도가 높은 자리에 리그 정상급인 두 선수가 발을 맞춘다는 자체로 기대를 높이기 충분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된 후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빌드업을 돕기 위해 한 명이 내려서자 중원에는 한 명만 남게 되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두 선수의 시너지를 기대했으나 정작 그런 모습을 보여줄 상황이 많이 나오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명주와 신진호라는 최고의 선수들에 비해 언급이 많이 되지 않았으나 중원에서 좋은 스쿼드를 갖춘 인천이다. 출전 때마다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던 여름, 꾸준한 안정감을 보여준 문지환과 인천에서 포지션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김도혁까지, '진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이를 위해 지난 시즌 대부분 사용했던 3미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외에도 조직적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며 경기력을 개선해가는 방법도 있다.

시즌 초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다. 여정은 많이 남았고 희망도 여전하다. 아직은 언제든지 결말을 비꿀 수 있는 시점이다. 부족한 점을 고치고 발전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보여주면 된다. 2023시즌, 인천이 가진 커다란 꿈이 찬란한 비상으로 이어질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IUFC TV

**2023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 카카오톡TV / 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YouTube



kakao tv



NAVER TV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INCHEON UNITED F.C.

iuu



다시, 비상

**인천유나이티드 F.C.
2003 ⚓ 2023**

2023. 4. 4. ^{Tue} – 6. 18. ^{Sun}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